



##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전문성 갖춘 변호사, 대학 교수, 전직 경찰 등 구성  
안건 심사·처리 절차에 투명성·공정성 한층 더 강화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내 자치경찰 공무원의 인사 상담과 고충 심사를 위한 고충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촉식은 기존 경북자치경찰 위 고충 심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신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들이 직무 중 겪는 각종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처리하는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날 위촉된 민간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법률 분야 전문 변호사 3명, 다년간의 현장 경력을 지닌 전직 경찰관 1명, 경찰행정학 및 심리학 담당 대학교수 2명이며 위촉 기간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북자치경찰위 고충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에 '경찰공무원법' 제31조 등에 따라 위원장 1명(자

치경찰총괄과장), 공무원 위원 4명, 민간 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됐으며, 경감 이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심사·처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손순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자치경찰 내부 고충 대처는 조직 내 신뢰 회복 및 업무 만족도 향상의 기반이 된다"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직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고충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 내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곧바로 정책 개선과 제도 혁신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